



##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전국최초,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부서 | 시흥시 아동돌봄과 ☎ 031-310-2702

### 개선배경



-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밀집 지역 확산 및 젊은 외국인 증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정주화로 관내 이주 배경 아동 증대
- (현 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 (선도적 대응 필요) 상위법 개정을 통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시흥시 내에서라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 판단

#### 사회적 문제점 대두

##### 출생신고 안 한 '그림자 아동' 2154명

지난 8년간 경기도 601명, 최다 감사원, 의료인 관리 실태 보니  
마약류 치료보호 이력 있는 3명, 정신질환 172명도 면허 유지

#### 관내 시민 운동 확산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흥을 위한 주민참여조례제정 프로젝트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만들기

####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

##### 방치된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사각지대

자국민 여남 자 출생신고 의무 제외  
보건 의료 의무교육 폐지, 범죄 노출 가능성 ↑  
아동 기본 권리 박탈  
보편적 출생등록제 '확구'

네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서명기간: 2021.08~2021.11

서명목표: 시흥시 투표권자 1만명



### 개선내용



#### 개선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현행법상 문제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아이들 다수 존재

#### 개선 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여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교육·복지·보건 사업 및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 보호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및 지원사업
  - (신청대상)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부 또는 모, 제3자 및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문 상담콜
  - (처리절차) 신청 → 현장조시(필요시) → 발급(2주 이내) → 행정지원 연계
  - (지원내용) 시흥아동확인증 및 세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개선과정



### 시민주도 주민 조례제정 운동에서 출발

- 【'21.08.26.】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취지 공표(시민연대 → 시흥시)
- 【'21.11.05.】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제정 청구 운동(시흥시장 적극적 지지)
- 【'21.11.30.】 청구인명부 제출 ※총 서명 : 22,083명/ 유효 16,405명
- 【'21.12.23.】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시 → 시의회)

### 적극행정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적 해석 극복

- 【'22.07.06.】 시흥시의회, 주민조례 심의 및 각하 결정

#### ■ 각하사유

출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 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부결됨.

- 【'23.01.18.】 조례제정 추진 공동 합의(시 ⇄ 시민연대 ⇄ 시의회)
  - (공감대 형성) 조례 취지와 의미 및 출생의 공적 확인 필요성 재인식

- 【'23.05.30.】 수정조례(안) 도출 논의(시 ⇄ 시민연대 ⇄ 시의회)  
- 옴부즈퍼슨 및 법률 전문가 등 자문으로 상위법 쟁점 사항 및 문제점 보완
- 【'23.07.25.】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발의 및 제정  
- (쟁점사항 보완)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 →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의원 대표 발의

## 개선효과



-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현황 (2024. 11. 기준/ 41건)

총계 (명)	세대 유형별 현황(세대수)			자원 연계 현황(건)			
	내국인	다문화	외국인	확인증 발급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물품지원
41	1	7	33	41	15	41	22

- (보편적 지원 확대) 시흥시 관내에서 시흥시민과 동등한 혜택 보장  
-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시 감면 및 할인 혜택 적용 ('23년)  
- 아동구강보건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 ('24년)  
- 관내 도서관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24년)  
- 아이맘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24년)
- (공적자원투입) 관계부서 실무 협의를 통한 지원 가능 사업 지속 확대  
-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등 선(先) 지원 ('23년)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포함 (관련 조례 개정 및 '24년 시행)
- (대외성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상 ('24년)

###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제정〉



### 〈'24.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조례 제정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지원하다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이현진 ☎031-310-2702



출생(出生), 세상에 나오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삶의 여정을 떠나는 첫걸음을 땀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내딛는 생애 첫 발자국을 세상과 연결하는 것.

2021년 시흥시민은 아동 인권의 시작 ‘출생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히 여겨왔던, 출생에 관한 공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미등록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혼외 출생 아동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시흥시민들이 모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시작하였고, 시흥시민 22,083명의 참여를 끌어냈지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시흥시의회에서 아쉽게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흥시는 시민 대표단, 시흥시의회와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조례는 기존 출생등록 업무를 대신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 8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대표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은 국적과 관계 없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아동 확인증의 진정한 의미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23년 8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1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굴되어 가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들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어떠한 탄생도 존재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 인권 보호에 한 발 더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